# 국제개발협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김 혜 경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 I. 서론

21세기 들어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보혁명은 한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위기가 되기도 한다. 한국기업들의 판매시장이 세계로 넓어졌는가 하면 국내시장마저 다국적기업들에게 내어주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진보된 정보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경쟁대열에서 낙오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제 한국기업의 경쟁대상은 글로벌기업이며, 글로벌 기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국내시장에서의 생존조차도 위협받게 된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이윤창출을 통해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기업들에게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 요구되고 있다. 기여해야 할 범위도 지역사회,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빈곤퇴치와 인권실현을 위해 2000년 제55차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머리를 맞대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서도 인류가 직면한 과제가 무엇이고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포럼이 내건 슬로건이 '세계의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Committed to Improving the State of the World)' 라는 걸 봐서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 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국제개발협력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으며,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과 영향력이 어떻게 보다 긍정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21세기 들어 사용되기 시작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 CC)'이란 용어가 한국기업들 사이에도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SK텔레콤은 국내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이사회 산하에 '기업시민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런 변화는 기업의 기본적인 목표가 이윤추구이지만, 그에 앞서 기업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란 무엇일까?

개개인이 법과 윤리적 규범을 지켜야 하듯, 기업도 법과 윤리적 규범을 지켜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국제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CSR이다. 개인이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며 그것이 개인의 인품이 되듯,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두고 기업활동을 해야 하며 그것이 기업의 품격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다국적기업들은 기업의 품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미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며, 매년 발표되는 '포춘(Fortune)'의 존경받는 기업이나 '글로벌리포팅(Global Reporting)' 등이 발표하는 기업평가에 관심을 갖는다.

2000년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는 기업들이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 등에 관한 10대 원칙을 갖고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약이다. 또 2010년에는 사회적 국제표준을 담은 ISO26000이 제정될 전망이다. ISO26000은 기업, 정부,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표 1〉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ISO26000 핵심주제**

| UN 글로벌 컴팩트 | ISO 26000 |
|---|---|
| 〈인권〉<br>1. 인권관련 국제규약을 지지하고 존중<br>2.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br><br>〈노동규칙〉<br>3.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br>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br>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br>6. 고용 및 업무에 차별을 철폐<br><br>〈환경〉<br>7.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br>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br>9. 친환경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 | 1. 지배구조 개선<br>의사결정과정 및 구조, 권한의 위임<br><br>2. 인권<br>비차별 및 취약집단 고려, 인권유린 공모 회피<br>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직장에서의 기본권<br><br>3. 노동관행<br>고용 및 고용관계, 사회적 보호 및 사회적 대화<br>직장 · 보건 · 안전 · 인적개발<br><br>4. 환경<br>오염방지 및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br>기후변화 완화 · 적응, 환경보호 및 복원 |

〈반부패〉
10. 부당취득 및 뇌물 등 부패에 반대.

5. 공정운영관행
부패방지, 책임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 재산권 존중

6. 소비자 이슈
공정한 마케팅 · 정보 및 계약관행, 소비자보건 · 안전 · 소비자 서비스 · 문제해결, 소비자정보 · 사생활 보호

7. 공동체의 사회 · 경제 발전
지역공동체 참여, 고용창출과 기술 개발
부와 소득 · 책임있는 투자, 교육, 문화, 보건

CSR은 소극적인 책임이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을 포함하며, 시민의 책임이 시민과 분리될 수 없듯이 CSR도 기업경영에 통합되어야 한다. 소극적인 책임이란 기업이 임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고 환경오염이나 소비자피해를 야기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기업이 되려면 한발 더 나아가 친환경적 기술 개발과 확산, 부당이득이나 뇌물 등 부패 퇴출, 아동노동의 철폐 등 적극적인 책임도 담당해야 한다. 아동노동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나이키나 갭(GAP)의 전처를 밟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무역 커피 판매를 시작한 스타벅스나 CSR을 기업경영에 통합한 쉘(SHELL)이 선도적인 사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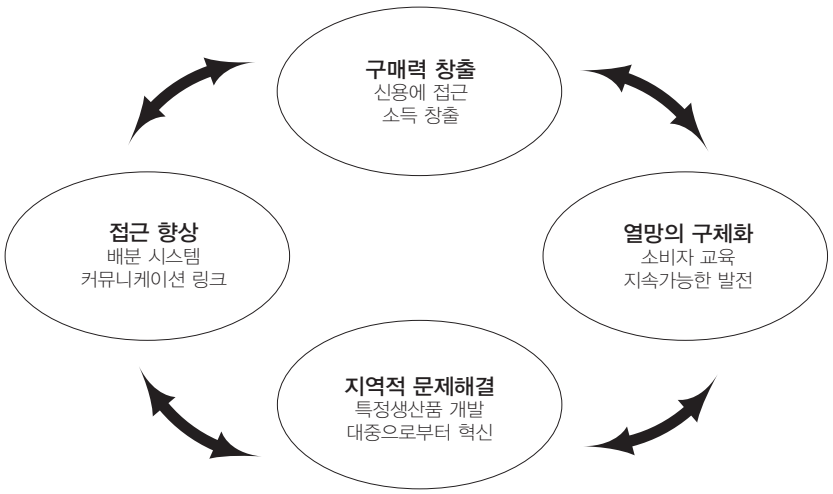
쉘(SHELL)이 8년에 거쳐 CSR을 기업경영에 통합한 사례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5년 쉘은 사용이 끝난 브렌트스파 플랫폼(석유저장시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린피스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본래 북태평양 심해에 침몰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던 쉘은 여론을 의식하여 계획을 바꿔 지상철거를 했다. 후에 심해 철거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쉘의 신뢰도에 이미 손상이 입혀진 이후였다. 쉘이 기술적, 법적,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더라도 계속되는 대중의 강한 항의를 직면할 때는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다. 이후 쉘은 기업의 경영원칙에 사회의 변화하는 기대를 더욱 잘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원칙들을 다루는 경영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다국적기업들에게 CSR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 되고 있다.

기업들이 연합하여 에이즈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자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에이즈 글로벌기업협의회(Global Business Council on HIV/AIDS)는 에이즈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동사회공헌을 이끌어 냈다. 협의회는 국제MTV네트워크를 통해 에이즈에 대한 인지제고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기업의 에이즈관련 사회공헌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중인식을 바꾸었다. 협의회는 에이즈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에이즈에 대한 작업장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이는 개별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글로벌 과제에 대한 활

동을 기업들의 협의회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높인 사례이다.

기업이 지역사회의 발전도 지원하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매출신장에 기여하는 사례도 있다. 프라할라드(Prahalad) 교수는 〈그림 1〉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시장의 장래성의 진정한 원천은 개도국의 몇몇 부자도 아니고, 떠오르는 중산층 소비자도 아니며, 생애 처음으로 시장경제에 진입하는 수십만의 야심찬 빈자들이다.'라고 주장한다. 유니레버는 인도에서 소형비누를 제작하여 여성인력을 방문판매원으로 고용하여 주민들에게 보급하였다. 유니레버의 이런 사례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이 질병예방과 고용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역량을 강화시켜 경제적 향상을 가져오는 성과로도 나타났다. 또한 피라미드 밑부분에 위치한 이들 빈곤층이 향후 유니레버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잠재고객이 된다. 이처럼 전기, 물, 보건 등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로 접근하여 기업의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 기업의 사례들이 있다.

**〈그림 1〉 피라미드 밑부분에 상업적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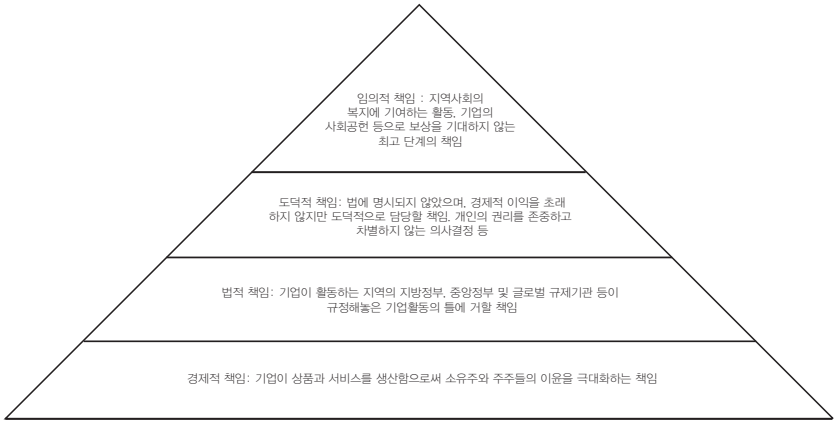



참고자료: 프라할라드의'피라미드 밑부분에 있는 부(富)'

## Ⅲ. 한국의 CSR과 사회공헌

기업이 CSR을 기업경영에 통합한다는 의미는 〈그림2〉의 네 단계로 나누어진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임의적 책임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CSR 논의는 사회공헌부터 시작되었다. 1994년 삼성그룹의 사회공헌을 총괄하는 삼성 사회봉사단이 창단되었으며, 이후 다른 기업들도 사회공헌팀을 두기 시작했다. 이제 기업마다 홈페이지에 사회공헌이라는 메뉴를 가질 정도로 사회공헌은 주요한 기업활동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2〉 종합 CSR




자료출처: Total Quality Management

〈표2〉에 보듯이 한국의 CSR은 국제사회의 추세를 시간간격을 두고 따라가고 있다. 대기업들은 점차 CSR이나 기업시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CSR을 접근하기 시작했으며, 사회공헌도 전략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CSR관련 국제규범 제정 및 활동변화

| 연도 | 국제사회 | 한국 |
|---|---|---|
| 1994 | | 삼성 사회봉사단 창단 |
| 1997 | 글로벌리포팅<br>(Global Reporting Initiative) 설립 | |
| 1999 | | 전경련 기업윤리헌장 제정 |
| 2000 | UN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 출범<br>새천년개발목표(MDG) 채택 | |
| 2001 | 글로벌 e-지속성 이니셔티브<br>(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출범 |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SCSO) 발족 |
| 2002 | Sarbanes-Oxley Act 제정 |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 발표(환경부) |
| 2003 | | 현대차, 삼성SD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 2005 |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 | SR 표준화포럼 설립 |
| 2007 | | 한국 글로벌컴팩트 출범 |
| 2008 | | 현대차 CSR위원회 설립 |
| 2009 | | SK텔레콤 기업시민위원회 설치 |
| 2010 | ISO26000 제정 예정 | |

참고자료: 기업시민활동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에는 많은 저해요인들이 있었다. 전경련이 발표한 2005 기업 ·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사회공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들은 내부적 요인으로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 부족, ▲전담부서의 부재, ▲담당인력의 부족, ▲예산 부족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사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에 반해서 외부적 저해 요인은 ▲정부지원의 부족(23.1%), ▲사회적 인정 부족(22.1%), ▲기업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19.2%) 이다. 이러한 외부적 저해요인은 사회공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내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을 확대하면서도 해외 사회공헌의 증가규모나 전략적 사회공헌의 비중은 여전히 미약하다.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헌도 대부분 사회복지나 기부금 형태에 그치는 실정이다.

## IV. PPP와 CSR

최근 외교통상부나 기획재정부 등 ODA를 관장하는 부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에 있어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는 크게 ODA의 집행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과 국제개발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ODA가 증가하는 현상이 한국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ODA가 비구속화되어 해외기업에게도 입찰이 개방됨으로써 과거 ODA 참여기업들이 위협을 당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7년에 경제개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Fund: EDCF)이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한국기업을 통해 유상원조를 제공해 왔다. 당초 EDCF는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해외기업에게는 입찰시장이 개방되지 않는 구속성원조(tied aid)였다.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KOICA도 거의 모든 입찰을 국내기업에게만 개방했다. 하지만 2010년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게 되면 DAC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조의 비구속화를 추진해야하며, 따라서 입찰시장을 해외기업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한국의 ODA시장이 개방되는 대신 전 세계의 ODA 시장이 열리므로 그에 필요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중 CSR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에 있어서 PPP전략이 더 이상 수구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간 한국기업들을 보호하고 특혜를 주는 방식의 PPP였다면, 앞으로는 한국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PPP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CSR을 기업경영에 통합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업이 국

제개발협력의 주체가 되어 활동할 때 CSR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하고 감시해야 한다. 메콩강 유역 개발을 위해 댐을 건설하면서, 몽골에서 광물자원을 채굴하면서, 인도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건설하면서, 미얀마에서 자연자원을 탐사하면서 환경 오염, 주민들의 이주권 침해, 인권의 외면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이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킨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이 자원 측면에서의 협력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다.

## V. 결론

기업은 국제개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동력이다. 원조가 국제개발에 있어서 지렛대라면 기업의 투자와 R&D는 실질적인 개발을 이끌어내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개발센터는 원조, 무역, 투자, 환경, 이주, 안보, 기술 등 7개 분야에 걸쳐 각 국의 개발 공헌정도를 측정한 개발공헌지수(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CDI)를 발표한다. 매년 OECD/DAC 회원국들을 평가하는데 한국은 2008년에 처음으로 평가대상국이 되었으며, 22개국 중 22위를 했다.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22위를 했는데, 투자와 기술 분야만큼은 각각 17위와 1위를 차지했다.

국제개발에 기업의 역할을 증대시키려면 정부도 기업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개발에 적극 나서서 인류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적극적인 CSR이며, 국제개발의 파트너로서 CSR을 다하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CSR이다. 한국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로 1,000억불이 넘는 원조시장에 뛰어들어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도록 지원할 것인가? 오늘날 인류의 최대과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협력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과제 해결에 참여하고 나서게 만들 것인가? 기업의 사회공헌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인가? 정부가 이런 물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찾아 실행에 옮기고 기업과 파트너십으로 국제개발에 기여할 때 국제개발의 진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1. 국내 문헌

조희재. 기업시민활동 (2009.10 출판예정)

전국경제인연합회.2005. 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서울: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 2. 국외 문헌

Barrett,D. and D.Ballou.2002. The Global Business Council on HIV/AIDS on World AIDS Day 2001,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Study 9-302-086. January 17, 2002.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2008,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ttp://www.cgdev.org/section/initiatives/_active/cdi/

Prahalad,C.K. and Stuart L.Hart.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at http://www.digitaldividend.org/pdf/bottompyramid.pdf

Wei-Skillern, J. Sustainable Development at Shell(A).2004.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Study 9-303-005. July 6, 2004.

Total Quality Management website at http://totalqualitymanagement.wordpress.com/2009/03/12/stakeholders-and-corporate-social-responsibility/

UN Global Compact at http://www.unglobalcompact.kr/12.php